



# 육사 출신 첫 국제변호사 문상익 변호사

## 만학의 길을 걸은 끝에 얻어낸 결실, 운명처럼 다가온 변호사의 삶

“국제 변호사 자격 따낸 50대 만학도, ‘육사 출신 첫 국제변호사 탄생’ 등 하루아침에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너무 거창해졌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2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법과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왔고, 이러한 경험이 이곳 뉴질랜드에서 법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9년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이민을 온 문상익 변호사는 지난 2005년에 와이카토 법대를 4년만에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6년 뉴질랜드 변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했다.

육군사관학교 35기 출신인 문 변호사는 1975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원에서 MBA, 미국에서 계약법을 전공한 후에 중령으로 예편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해왔으며, 군 생활 중 상당 기간을 국방부에서 국제계약관이라는 직책을 맡아 한국대표로 미국과의 국제협력 및 물품구매 협상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런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과 영어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셈이다.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 무얼할까 고민도 많았죠. 그러던 중 그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국제계약관으로서 재직하면서 늘 어렵게 느꼈던 영어와 법을 좀더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법대 진학을 결심했죠. 법대 입학에 앞두고 좀더 철저한 준비와 이곳 뉴질랜드 사회를 알기 위하여 AUT에서 영어공부와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그는 해밀턴의 와이카토 법대에 224명의 신입생 중 한 사람으로 입학했고, 2005년 졸업하기 매우 어렵다는 법대를 4년만에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늦게 시작한 공부라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어요. 늘 잠이 부족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네, 다섯 시간 밖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했



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공부가 자리 잡히기면서 3학년 이후에는 잠자는 시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법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물론 모든 환경이 새롭고 낯설어서 학교생활 중 공부를 포함한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을 과연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만학을 하다보니 주위에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아니냐’는 만류가 많았으며, 몸이 아파도 당장 해결해야 하는 에세이 과제와 시험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 등도 커다란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